

대한민국의 문제와 교회의 역할

성경말씀: 겔33:1-11

요즘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위태롭다.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실상 분석, 내가 추가, 교회의 역할 그 목사님의 글 시작:

보수든, 진보든, 중립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 살고프면 꼭 읽어야 한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좌우파 이념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라.

미국 등에 의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 대한민국 건국

이 시기에 많은 식민지 국가가 구미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고 유엔에 가입하여 독립국가로 새 출발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대만민국의 현 상황

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8위, 단기간(2년)에 IMF를 극복한 나라,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LCD생산 세계 2위,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공항 평가 세계 1위

범죄 검거율 세계 2위인 치안 확보된 나라,

세계에 드물게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빠른 인터넷 속도, 빠른 서비스,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여러 도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A/S서비스가 가장 신속한 나라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 보유국,

철강제조 산업 세계 1위,

세계 건설산업 규모 3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세계 자동차 생산규모 3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특허시장 점유율 세계 7위의 나라,

세계 주요국 교육체계 평가 순위 1위,

학교정보화시설 세계 1위,

역대 기능올림픽에서 최근 연속 5회 종합우승한 나라,

세계에서도 드물게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평균 IQ가105를 넘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새마을 운동으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발전의 모델이 된 나라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1세기복스, 하버드대 박사(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가 본 한국의 가능성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한국인들만 이를 잘 모르고 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발전은 여기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보자.

1. 발전의 한계와 모순

어떤 나라의 역사든 부침이 있다.

로마제국도 망했고 몽골제국도 사라졌다. 대영제국도 패권을 미국에 내주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발전의 피로가 너무 빨리 왔다.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흘러내리는 술에, 나라는 취해 비틀거린다.

내부 모순으로 나라는 좌우중횡, 사분오열 갈라지고 있다. 조선말기 사색당파 유사함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린다.

2. 근로의욕의 상실과 무상복지 사회주의 병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 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구책이 없는 국가에 퍼주면 둘 다 망한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국민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무상복지"라고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병폐,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 하는 사람: 해서 뭐 하나

경제의 추락 1. 3월 15일, 한국경제 역풍 직면" IMF의 이례적 경고,

2. 3월 4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성장률 2.1%는 정부 전망치(2.6~2.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성장률조차 한참 밑도는 '쇼크' 수준이다. 투자 부진에다 수출 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등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본 이유라고 무디스는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속보치 기준)였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2018년도 3%, 지도자에게 달렸다.

문제인 정권은 재주가 좋다. 손만 대면 적자

2018년 국민연금 수익률 10년만에 마이너스 기록(-0.92%)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기록, 결국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54조원, 10만 개도 안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3. 이념(理念)의 혼란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다.

공산주의도 지상낙원을 꿈꾸며 가꾼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적 실험으로 확실하게 실패했다. 1억 명 이상 죽임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가 하나 있다. 북한이다. 중국, 러시아 정치 공산주의, 경제 No!

그러나 알고 보면 북한은 많이 변질된 공산국가다. 어버이 수령 동지 숭배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 그들은 피폐했던 과거 조선말의 왕조 국가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다. 진보가 아니라 수구 꼴통 반동 세력, 그들의 왕조는 이미 삼대 세습하여 틀을 완성했다.

백성은 섬김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혀 돌보지 않은 산하는 거의 사막으로 변했다.

백성은 상시적으로 굶어서 난장으로 DNA가 변했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낙원의 현주소이다.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고 있다.

그것은 "위협용"과 "자폭용"이다.

위협으로 실리를 취하되,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 끝 전술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편드는 우리 종북 세력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믿는 도끼이다. 이들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보라. 대한민국 시민인지 의심스럽다. 인격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미국 교육, 국민들을 무어로 보기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가?

4. 성문란과 도덕적 타락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성문란이다.
긴 얘기가 필요치 않다. 빅뱅의 승리, 정준영 사건, 몰카 사건 등
이것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요즘 동성애가 화두다. 커밍아웃이 자랑이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차별을 금지하자고 한다.
누가 차별하는가? 법이 만들어지면 역차별이 생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 한 번 결혼해야 한다는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을까?
또 묻는다. 그러면 종족 보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해답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자멸, 인류의 자멸로 이어진다.

5. 부정부패

이것은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실만을 따 먹으려는 공짜심리이기도 하다.
이것에 물들면 아무도 일을 힘들여 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는다.
그곳에서 준법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위치가 바뀐다.
나라가 망하는 조건에 이것도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6. 인구감소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거론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원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제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직계만 있고 방계가 없어진다.
이모, 삼촌, 조카가 없어진다. 자녀는 나 홀로 크다.
거기에는 배려나 협조라는 개념이 자라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변지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런데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애국심만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는다.
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이 대한민국만이 안고 있는 큰 문제

7.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한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맞선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몰입한다.
애석하게도 선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심지어 선거 개표기도 의심의 대상
더 웃기는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이다. 이것은 만능이 되었다.
강도가 민주화유공자가 되고,
폭력이 민주화운동이 되어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누린다.
광주 사태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것을 언급하면 형사 처벌하자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화인가?
이대로 더 진행되면 국가가 멸망한다.

배 타고 놀러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고 한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 운동이란다.
 야당의 원내 대표가 주어진 시간에 발언하는 것을 미주주의를 가장 신봉한다는 민주당 사람들이 야유한다. 본질을 왜곡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아니다. “외국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제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이다.
 내 말만 민주주의, 다른 사람 말은 다 부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심각한 역사 왜곡: 이승만, 박정희 등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한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유산이다. 배은망덕하면 누구나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고는 결국 자유 한국당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봉쇄시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판 농단
 이것은 나라의 등골을 빼 먹자는 찰나적 이기주의의 본질이다.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다.
 이런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 사회"인 것이다.
 이곳에서 살려면 인간은 짐승으로 변해야 한다.
 즉 인류사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8. 교회의 타락

대한민국 교회 1000만 명, 인구의 5분의 1
 어디서 왔나, 미국에서 왔다. 미국은 기독교 입국, 현시대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미국의 근본적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좌익이 존재하는가? 좌익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유물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들이 좌익이다.
 그런데 어찌 기독교인들이 좌익 인사와 정당에 투표하는가?
 나라가 이런 지경으로 가는데 어찌 목사들이/교회들이 바르 말을 하지 않는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잠잠한가?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자. 겔33:1-11
 목사들, 성도들,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이상의 얘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기독교가 처한 상황
 여기서 작심하고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운은 대한제국 같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교회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운은 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늑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먹어 버린다.

조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 글을 읽고 지인에게 보내어 후손을 위해 계몽해야 한다.

아파트 건물이 무너진다. 그 안의 개인, 교회가 혼자 잘 살려고 노력해 봐야 소용이 없다.

무너지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내 집에 도둑이 들면 가서 잡는다.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런데 내 국가를 망치는 자들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돌아서자. 주님의 약속

대하7:14